

형사에게 전수받은 비기, 1인 시위

요즘이야 1인 시위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1990년대 초반 일이다. 내가 일하던 환경단체 반핵팀에선 집회가 잦았다. 사무실 근처에 있던 원자력홍보기관의 정문 앞은 단골 집회장이 되었다.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하니 관할 경찰서를 제집처럼 드나들게 되었고 접수 담당 형사와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마주치게 되었다. 한번 신고에도 몇 시간씩 소요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사님이 시지프스의 노동을 치르는 내가 딱해보였는지 자기가 피곤했던지 넌지시 귀뜸을 했다. “어이, 자네 1인 시위설, 3인 시위설 이런 거 좀 아나?”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가 싶어 들어보니 유권해석상 한국에선 2인 이상 모이는 것을 집회로 치지만 예컨대 독일은 3인부터 집회로 친다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선 2인이면 집회신고를 안 해도 되단 말씀이지.”

“아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1명이면?!”

“말귀 단박에 알아듣는구먼, 근데, 이거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돼. 알았지?”

그날 이후로 집회신고의 업무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나 혼자 출동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언론, 어떻게든 기사, 가능하면 사진까지 올라가도록 해보자. 샌드위치맨처럼 몸에 피켓을 주렁주렁 달기, 온 몸에 분칠을 하고 동상처럼 서 있기, 해골바가지 쓰고 드럼통 굴리기 등등 사진발 충만한 퍼포먼스를 개발하자! 그 이후 십년 이상 온갖 눈에 띄는 짓을 고안하면서 1인 시위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가끔 1인 시위라는 놈의 원조는 내가 아니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공명심에 빠지기도 하면서^^ 최근 아래 내용을 접하면서 출동 본능이 꿈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여론을 조사했다. 당사자인 일본은 18%에서 42%로, 중국은 36%에서 48%, 독일은 56%에서 81%로 반대 여론이 치솟는 가운데 한국까지 반대 여론이 27%에서 45%로 높아져 찬성(44%)보다 최초로 많아졌다. 그런데, 작년에는 매월 원전 여론조사를 하던 (원자력문화재단)이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번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

글 · 최경송 keychoe@hanmail.net

